

로 매 20초 간격으로 30분에 걸쳐 magnetic disc 장치에 수록하여 Computer의 도움으로 $T_{1/2}$ (반감시간)을 산정하였다.

정상인 7명의 평균 GET는 8.89 ± 3.31 분이었으며 기능성 위장장애 환자 28명의 평균 GET는 14.11 ± 5.97 분이었다. 이중 경과관찰이 가능하였던 환자는 13명이었는데 약물 투여후 증상의 완전 소실을 보인 환자는 2명으로 평균 GET는 6.0 ± 2.83 분이었으며 호전을 보인 환자는 8명으로 이들의 평균 GET는 17.26 ± 5.30 분이었다. 약물 투여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변화를 볼 수 없었던 환자는 3명이었으며 그 평균 GET는 11.07 ± 0.32 분이었다.

10. 肝스캔上 體位變動에 따른 肝形態變化에 對한 考察

國軍서울地區病院 核醫學科

洪 基 碩

最近 國內에서도 감마카메라의 도입 증가와 아울러 肝스캔을 시행할 때는 대부분 ^{99m}Tc -colloids를 이용하게 되었다. 이들의 이용은 과거 rectilinear 스캔너와 ^{198}Au -colloid의 이용 때보다, 解像력이 우수해졌음은 물론, 스캔시의 소요시간이 매우 짧아져 더욱 더 편리하게 되었다. 그러므로 과거엔 모든 환자들이 臥位에서 肝스캔을 시행하였으나 요즘은 立位에서도 간편하게 시행할 수가 있다. 그러나 立位와 臥位에서의 肝스캔上 肝의 形態의 變化가 있음을 發見할 수 있었고, 이러한 變化는 體位변동에 따른 肝의 重力에 따른 變化와 肝實質의 病的상태에 따른 변화 및 胸部와 腹腔의 變化等에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.

이에 演者들은 1980年 12월부터 1981年 3月 사이 정상인 33명과 肝疾患患者 10명에서 Ohio nuclear 감마카메라와 low energy parallel hole collimator를 사용하여 ^{99m}Tc -colloids를 이용한 肝스캔을 立位 및 臥位에서 각각 시행하여 서로를 比較하였던 바,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기에 이에 報告하고자 한다.

1) 정상인 33명 중 남녀는 각각 23명, 10명이었으며 나이는 21세와 70세 사이였고, 환자 10명 중 남녀는 각각 7명, 3명이었으며 나이는 28세부터 74세 사이였다.

2) 정상인 33명의 우측 肝葉의 높이는 臥位時 16.3 ± 1.59 cm, 立位時 17.29 ± 1.94 cm였으며 좌측 肝葉의 높이는 臥位時(31명) 8.8 ± 1.29 cm, 立位時 10.76

± 1.47 cm로 立位時에서 臥位時보다 우측은 0.75 ± 0.90 cm의 차이를 보였으나 좌측은 1.86 ± 0.82 cm의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.

3) 10명의 환자들에서는 우측 肝葉의 높이는 臥位時 18.12 ± 1.53 cm, 立位時 19.0 ± 1.88 cm였고, 좌측은 臥位時 9.88 ± 1.59 cm, 立位時 11.24 ± 1.41 cm로 立位時에서 臥位時보다 우측은 0.88 ± 1.15 cm의 變化를 보였고 좌측은 1.35 ± 1.44 cm의 變化를 보였다.

4) 정상인 32명의 肝의 最長 幅이는 臥位時 19.47 ± 1.94 cm였고 立位時 19.0 ± 1.71 cm로 體位에 따른 변화는 거의 없었으나, 肝의 最右側에서 脾臟의 最左側까지의 幅이는 臥位時 26.76 ± 1.82 cm, 立位時 24.82 ± 1.82 cm로 臥位時 立位時보다 1.94 ± 1.07 cm 더 넓었다.

5) 환자들에서의 肝의 幅이는 臥位時 21.88 ± 1.82 cm였고 立位時 20.94 ± 2.0 cm로 0.94 ± 0.84 cm의 變化를 보였으며 肝의 最右側에서 脾臟의 最左側까지의 幅이는 臥位時 28.06 ± 2.47 cm, 立位時 26.71 ± 2.12 cm로 1.47 ± 0.68 cm의 차이를 보였다.

6) 총 43명의 스캔중 8명에서 臥位時보다 立位時 脾臟의 uptake가 증가되어 보였고, 9명에서는 立位時 caudate lobe가 뚜렷해지는 등 다소 鮮像力이 우수하다 할 수 있었으나 疾患의 診斷에는 큰 도움은 없었다.

7) 납판의 mark를 이용하여 肝의 最上端의 體位에 따른 變化는 立位時에서 臥位時보다 $0 \sim 2.5$ cm 하강함을 보였다.

8) 간경화증이나 간암등 심한 간질환자들에서는 體位변동에 따른 肝의 形態의 變化가 매우 경미하였다.

11. 간신티그래피상에 나타난 간의 각종 선계측에 관한 비교 검토

가톨릭의대 방사선과

양일권 · 박선희 · 임정직 · 박용휘

간비대를 일으키는 질환을 진단함에 있어서 단순복부X선촬영 및 간신티그래피를 관찰할 때에 간비대의 유무가 매우 중요한 소견이 될 수 있다. 지금까지 간의 크기는 주로 간의 길이, 너비, 면적 및 중량 등에 대해서 평가되어 왔으며 임상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간신티그래피 사진에서의 계측이 보다 객관성 있는 평가 방법으로 통용되어 왔다. 이들 측정방법 중 면적 및 중량 측정방법은 정확하기는 하지만 바쁜 임상 진료실에서 이용하기에는 많은 불편이 있으므로 손쉽고